

광주여대 양궁 안산, 생애 첫 올림픽 무대 선다



지난 23일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 여자부 경기에서 안산(광주여대)이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 선발전서 도쿄행 티켓 확보 광주 남구청 이승윤 4위로 무산

광주여자대학교 안산(20)이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 선다.

안산은 지난 23일 강원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2021년 양궁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에서 3위를 차지, 도쿄올림픽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안산은 최종 배점 합계에서 장민희와 나란히 11점을 받았으나 전체 평균 기록 합계에서 221.42점으로 장민희(222.33점)에 뒤져 상위 1~3위까지 출전하는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다. 세계랭킹 1위 강채영(25-현대모비스)과 장민희(22-인천대)가 1, 2위로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여대는 2012년 런던올림픽(기보배), 2016리우올림픽(최미선)에 이어 2020도쿄올림픽까지 3회 연속 올림픽 대표를 배출했다.

광주 남구청 이승윤(26)은 아쉽게 남자부 4위를 차지하며 리우에 이어 2년 연속 올림픽 진출 꿈을 접었다.

이승윤은 치열한 접전 끝에 김제덕(17-경북일고)과 같은 배점 10점을 받았으나 전체 평균 기록

합계에서 224.35점으로 김제덕(225.58)에 뒤져 아쉬움을 더했다.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우진(29-정주시청)이 압도적 경기력을 보여주며 종합 배점 16점으로 남자부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대표팀 최고령 오진혁(40-현대제철)이 합계 13점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다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대한양궁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 되자 원점에서 다시 국가대표선발전을 통해 올림픽 출전선수를 결정하기로 했고, 그동안 세 차례 선발전을 통해 남녀 각 8명의 국가대표를 뽑았다.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한 국가 당 최대 남녀 각각 3장, 남녀 각 8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난 4-9일 부산에서 진행된 최종 1차 평가전과 19-23일 원주에서 펼쳐진 최종 2차 평가전 점수를 합산해 남녀 상위 1~3위, 6명의 선수를 최종 확정했다.

박세순(광주시청 양궁감독) 국가대표 총감독은 "선발된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보면 단연 세계 최고다. 도쿄에서 한국 양궁 사상 최초 남녀 3관왕 탄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의 저력을 이어간다는 각오로 선수들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년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



지난 23일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확정된 안산(광주여대)이 김성은 광주여대 양궁 감독과 올림픽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 양궁협회 제공>

해남장사씨름대회 27일 무관중 개막

2021 민속씨름리그 2차 대회인 '위더스제약 2021 해남장사씨름대회'가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무관중으로 개최된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해남군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태백·금강·한라·백두급 체급별 개인전과 단체전이 펼쳐지며 총 142명이 참가한다.

27일 태백급(80kg 이하) 예선, 28일 태백장사

결정전을 시작으로 금강장사(90kg 이하) 결정전,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 백두장사(140kg 이하 결정전), 단체전이 차례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는 관중 없이 치러지지만, 모든 경기는 유튜브 채널 '살바 TV'에서 볼 수 있다.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는 KBS N에서도 생중계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빙속 황제' 이승훈 5000m 우승



25일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제47회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남자 1500m 올라운드 경기에서 이승훈(서울일번)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이승훈(서울일번)이 제75회 전국남녀 종합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첫날 남자 5000m에서 우승했다.

이승훈은 24일 서울 태릉빙상장에서 열린 남자 5,000m에서 6분39초61의 기록으로 정재원(서울시청·6분43초16), 엄천호(스포츠투트·6분45초21)를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끊었다.

남자부 500m에선 김철민(스포츠투트)이 36초46의 기록으로 1위, 엄천호가 37초64로 2위 자리에 올랐다.

박지우(강원도청)는 여자부 3000m와 500m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종합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여자부 장거리 간판 김보름(강원도청)은 이번 대회에 출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종합선수권대회는 장거리 선수들이 경쟁하는 대회다. 남녀 500m와 남녀 1500m, 남녀 5000m, 남자 10,000m, 여자 3000m, 남녀 올라운드 성적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단거리 선수들이 승부를 펼치는 제47회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했던 정선교(스포츠투트)가 대회 첫날 남자 500m 1차 레이스(35초661)와 남자 1000m 1차 레이스(1분10초97)에서 모두 깜짝 1위를 차지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1000m 동메달리스트인 김태운(서울시청)은 두 차례 레이스에서 모두 2위 자리에 올랐다.



박민지가 25일 경남 김해 가야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1' 최종라운드 1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지 짜릿한 역전 우승...KLPGA 통산 5승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연장전에서 장하나 제압

박민지(23)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1시즌 두 번째 대회인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총상금 8억원)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박민지는 25일 경남 김해의 가야 컨트리클럽(파 72-6813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3라운드까지 9언더파 207타로 선두에 한 타 뒤진 2위였던 박민지는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를 기록, 장하나(29)와 동타를 이룬 뒤 2차 연장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2017년 4월 삼천리 투게터 오픈, 2018년 11월 ADT캡스 챔피언십, 2019년과 지난해 8월 MBN 여자오픈에 이은 박민지의 KLPGA 투어 통산 5 번째 우승이다. 우승 상금은 1억4400만원이다.

맑지만 강한 바람 속에 이어진 최종라운드 중반

까지는 장하나가 순항했다. 하지만 장하나가 막판에 급격히 흔들리며 경기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다.

17번 홀 티샷이 짧아 가까스로 파 세이브에 성공한 장 하나는 18번 홀(파4)에선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하고 결국 보기에 마쳐 박민지와 역전 연장전이 성사됐다.

18번 홀에서 열린 1차 연장전에서 두 선수 모두 파를 기록했고, 같은 홀의 2차 연장전에서 승부가 갈렸다.

장하나의 두 번째 샷이 그린을 훌쩍 지나고 세 번째 샷은 짧아 파 퍼트가 6m 가까이 남으며 결국 보기에 그쳤고, 박민지는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린 뒤 집착하게 2퍼트로 마무리해 마집표를 찍었다.

1, 2라운드 단독 선두, 3라운드 공동 선두를 달린 장 하나는 34번째 최종 라운드 챔피언십에 들어 KLPGA 투어 최다 신기록을 세웠으나 통산 14승은 다음으로 미뤘다. 장 하나는 개막전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 이어 연속 준우승했다. /연합뉴스

헨더슨 LPGA 통산 10승...고진영 공동 3위

캐나다 골프의 간판 브룩 헨더슨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10승 고지에 올랐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은 2타 뒤진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헨더슨은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윌셔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LPGA 투어 휴젤-에어 프리미어 LA오픈(총상금 15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68타로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22만5000달러.

헨더슨은 지난 2019년 6월 마이어 클래식 제패 이후 22개월 만의 우승으로 통산 10승을 달성했다.

제시카 코르다(미국)에게 4타, 고진영에게 3타 뒤진 3위로 최종 라운드에 챔피언십 경기에 나선 헨더슨은 예리한 샷과 퍼트, 그리고 행운까지 더해 역전승을 거뒀다.

2번 홀(파5) 버디로 추격에 시동을 건 헨더슨은 5번 홀(파4) 버디, 6번 홀(파4) 보기, 7번 홀(파

3) 버디 등 역동적인 플레이로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고진영은 10번 홀까지 버디 1개, 보기 1개로 제자리걸음을 걸었고, 코르다는 2타를 잃어 헨더슨에게 추격의 빌미를 줬다.

기세가 오른 헨더슨은 11번 홀(파4), 12번 홀(파3) 연속 버디로 선두로 올라섰다.

고진영은 11번 홀과 12번 홀에서 모두 그린을 놓치며 연속 보기를 적어내 헨더슨은 순식간에 3타 차로 달아났다.

3언더파 68타를 친 유소연(30)이 공동 5위(12언더파 272타)에 올랐다. 이정은(25)은 5언더파 66타를 때려 7위(11언더파 273타)를 차지했다. 율해 40위 이내에 든 적이 없던 이정은은 시즌 첫 톱10에 진입했다. 박민비(33)는 1타를 줄여 공동 15위(6언더파 278타)로 대회를 마쳤고, 김세영(28)도 1언더파 70타를 적어내며 공동 17위(5언더파 279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서복
2관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3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4관	어른들은 몰라요
5관	서복
6관	내일의 기억
9관	내일의 기억
7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고질라 VS. 콩, 노바디, 플립, 최현
8관	내일, 자신아, 어른들은 몰라요 스프링 송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GAC 11시 음악산책1
박해상의 사랑스런 것들을 위한 노래
일시 : 2021.04.29.(목)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334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4. 01.(목) - 04. 30.(금)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